금호타이어, 내년도 한 치 앞 안보인다

내년 공장 가동 예측률 82% 불과…판매 달성 불투명
사측 자구안 노조 반발·대외 통상환경 악화 '사면초가'

금호타이어가 신년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회사 내부에서는 영업오더(주문) 축소로 인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유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내년에 필요한 자구 계획안을 제시했다가 노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여기에다 경기침체와 불투명한 대외 환경 등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계획했던 공장가동률이나 중장기 판매계획 달성을 낙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3일부터 진행중인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 본교섭에서 내년에도 공장가동률 정상화가 진행되지 못하는 데 따라 330명 가량의 생산직 유휴 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노조측에 전했다. 회사측은 내년 공장가동률을 82% 선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공장 가동률(93%)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상화까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나마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실적 부진 여파가 고스란히 타이어업계 영업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데다, 미·중 무역전쟁, 유럽 영업망 붕괴 등 불투명한 대외 환경도 예측 불허라 계획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올 9월까지 가동률도 77.5%에 불과하고 올해 전체 가동률이 78% 수준에 머물 것으로 회사측은 예상하고 있다.

사측은 이러한 점을 들어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인력 재배치나 올해와 같은 공장 휴무 일정 수립 등이 내년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회사측은 신차용 타이어 주문량 및 유럽 영업실적 감소 등을 감안, 평택공장의 경우 최장 101일, 곡성공장 내 승용차 타이어(PCR) 생산라인은 60일, 광주공장 44일의 휴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노조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무능한 경영능력과 경제현실을 핑계 삼아 다시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조는 즉각 '더블스타와 사측 경영진은 조합원들의 고통에 대한 비전과 노조 요구안에 대한 답변 없이 또다시 제 2의 자구안을 담아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발 성명서를 냈다.

노조측은 "월별 해외영업 판매단가가 생산 단가보다 낮았던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무사안일한 경영 행태로 인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식"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제 2의 자구안이나 다름없는 사측 제시안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미래비전이 담긴 희망적 안을 회사와 더블스타가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더 나아가 현재 공석인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 "회사를 살리는 경영정상화에 대한 약속과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사측은 앞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제값 받기를 통한 흑자 실현'을 내년 영업 목표로 내걸고 매출액 5.1% 증가, 매출량 5.8% 증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2월 이후 10개월 만에 또다시 시행한 생산직 근로자 희망퇴직에 30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은행 희망 공부방 50호 '두암복지관 어린이도서관'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8일 오후 북구 두암종합복지관 1층에 위치한 이음어린이도서관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50호점 선정식을 가졌다.

지난 2015년 5월 공부방 1호점을 시작으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해에 50호점을 선정하게 됐다. 이날 선정식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장용관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최영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장주동 두암종합복지관장과 함께 지역 아동 30명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지역의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쾌적한 독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음어린이도서관을 희망의 꽃피는 공부방 50호점으로 선정했다. 이에 친환경 자재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책걸상과 도서를 지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송종욱(가운데) 광주은행장이 18일 오후 북구 두암종합복지관 1층에 위치한 이음어린이도서관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50호점 선정식을 갖고 풍선 50개 날리기 행사를 펼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전남 수출 전년비 11.8% 증가

11월 7억400만 달러 흑자 … 수입 28.5% 늘어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 무역수지가 7억400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18일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에 따르면 1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5% 증가한 46억5000만 달러, 수입은 28.5% 증가한 39억4600만 달러로 무역수지가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한 7억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1.8% 증가하고, 수입은 23.3% 증가해 무역수지 기준 83억3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9% 감소한 13억1900만 달러, 수입은 11.3% 감소한 4억9800만 달러로 무역수지 8억2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타이어(24.7%↓)·가전제품(14.4%↓)·기계류(10.6%↓) 등이 감소했다. 수입은 가전제품(140.6%↑)·기계류(24.4%↑)가 증가했으나 반도체(10.6%↓)·고무(8.6%↓)·화공품(7.1%↓)등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출은 중남미, 미국이 증가한 반면 중국 EU가 감소했다. 수입은 EU, 미국이 증가했으나 중국, 일본, 동남아가 감소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4.0% 증가한 33억3100만 달러, 수입은 37.4% 증가한 34억48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1억17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품목별로 수출은 수송장비(38,164.0%↑)·석유제품(27.2%↑)·철강제품(3.2%↑)등은 증가했으나 기계류(42.5%↓)·화공품(9.6%↓)은 감소했다. 수입은 석유제품(62.5%↑)·철광(56.4%↑)·원유(33.9%↑)·화공품(30.4%↑) 등이 증가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2.11 (-8.98)	금리 (국고채 3년)	1.80 (0.00)
↓ 코스닥	659.67 (-2.23)	↓ 환율 (USD)	1129.60 (-1.70)

중장년층 2명 중 1명은 빚쟁이

연 평균 소득 광주 3126만원·전남 3019만원

■ 중장년층 금융권 가계 대출 분포 현황 〈단위: %, 만원〉

	합계	대출잔액 보유자 비중	1천만원 미만	1~3천 만원	3~5천 만원	5~7천 만원	7천만~1억원	1억~2억원	2억~3억원	3억원 이상	대출잔액 중앙값
전국	100	55.2	19.3	24.3	12.0	7.8	8.3	16.0	6.2	6.1	3,911
서울	100	55.0	20.1	24.4	11.0	7.1	7.6	15.4	7.1	7.4	3,781
부산	100	52.0	22.0	22.5	11.4	8.0	8.8	15.5	6.0	5.8	3,800
대구	100	50.3	20.9	23.8	11.7	7.9	7.6	16.0	5.8	6.3	3,770
인천	100	57.1	19.1	23.8	11.4	7.7	9.4	17.5	6.2	4.9	4,038
광주	100	53.8	17.5	26.6	13.7	8.4	9.1	15.4	5.0	4.3	3,699
대전	100	54.3	19.9	25.5	12.3	8.8	7.9	15.7	5.3	4.6	3,554
울산	100	53.3	19.0	23.0	11.0	7.7	8.7	17.1	6.6	6.9	4,237
세종	100	61.8	13.2	18.0	10.4	8.9	8.8	22.0	9.6	9.2	6,817
전남	100	53.3	19.5	27.8	14.3	9.4	9.0	12.3	3.8	3.8	3,133

■ 중장년층 광주·전남 소득(근로·사업소득) 분포 현황 〈단위: %, 만원〉

	합계	소득 (신고액) 있음	1천만원 미만	1천만원~3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7천만원	7천만원~1억원	1억원 이상	평균 소득
전국	100	73.2	30.2	33.5	14.5	8.7	7.9	5.2	3,349
광주	100	74.1	30.8	35.3	13.5	8.2	7.8	4.4	3,126
전남	100	67.0	33.6	32.8	12.6	9.4	7.4	4.2	3,019

광주·전남 2017 행정통계

광주·전남지역 중·장년층(만 40~64세) 절반 이상이 금융권에 갚을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00만원~3억원 이상의 고액을 빌린 중장년층이 1년 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광주에서 금융권 가계대출(제 3금융권 제외)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53.8%로 1년 전(53.3%)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전남지역 중장년층은 53.3%가 금융권에 갚을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52.7%)보다 0.6%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55.2%였다. 10명 중 5명 이상이 '빚의 굴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중장년 대출 잔액의 중앙값은 광주는 3699만원(전년 3512만원), 전남은 3133만원(3000만원), 전국은 3911만원(전년 3633만원)이었다.

중·장년층의 금융권 대출액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대출액 7000만원 이상 광주지역 중·장년층 비중은 증가한 반면, 7000만원 미만 비중은 감소했다.

광주의 경우 3억원 이상 빌린 중장년층 비중은 4.3%로 지난해(4.0%)보다 증가했고 2억~3억원 비중도 5.0%로 1년전(4.7%)보다 상승했다.

지난해 8.9%이던 7000만~1억원 대 출자 비중은 올해 9.1%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1000만~3000만원 비중은 감소했다.

전남도 3억 이상 빌린 중장년층 비중이 3.8%로 지난해(3.2%)보다 증가했고 1억~2억원 미만 대출자 비중도 12.3%로 전년도(12.1%)보다 소폭 늘었다.

광주의 중장년층 인구(지난해 11월 1일 기준)는 56만2000명으로 총인구의 38.2%였고 전남은 전체 인구의 38.4%인 6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중장년 인구는 광주는 74.1%, 전남은 67.0%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연간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은 광주 3126만원(지난해 3131만원), 전남은 3019만원(지난해 2912만원)으로 집계됐다.광주는 1년 전보다 소득이 줄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새로 일자리를 얻은 만 40~64세 임금근로자 70만8000명 중 3분의 2는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창사66주년 광주일보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 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